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161-203  
<https://doi.org/10.29212/mh.2022.122.16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조선 초기 大閱의 정립과 진법훈련의 변화\*

허대영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 목 차
1. 머리말
  2. 세종대 대열의 진법훈련 정비와 진법서의 편찬
  3. 『(오위)진법』의 편찬과 진법훈련 변화
  4. 맺음말

**초 록** 조선 초기 진법훈련은 ‘大閱’이란 이름의 군사훈련의례로서 정립되었고, 군사훈련과 군사의례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군사훈련의례의 군사훈련 혹은 군사의례라는 한 측면만 주목해왔다. 본 논문은 조선 초기 국가의례의 하나로서 정립된 대열 절차 중 진법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변화를 검토하여,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11107)

그 군사적 함의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선 초기 진법훈련은 태종대부터 군사훈련의례로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대열의 의례 절차는 『개원례』를 따랐지만, 진법훈련의 절차는 『진도법』의 진법론에 의거하였다. 『진도법』의 훈련절차는 『주례』의 제도를 지향하였던 정도전의 진법론을 따른 것이었다. 세종대 군사훈련의례로서 大閱儀 정립의 과제는 唐의 의례제도와 『주례』의 훈련 형식을 결합하는 일이었다. 세종대 편찬된 진법서인 『계축진설』은 그 고민의 결과물이었다. 『계축진설』의 편찬으로 조선의 이상적인 진법훈련의례로서 대열의를 정립할 수 있었다.

이후 조선의 군사훈련의례 대열의 훈련법은 문종대 이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념적이고 형식적인 훈련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闕武, 習陣 등을 통해서 새로운 훈련을 시도하였고, 『(오위)진법』의 편찬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이전의 진법서는 중국 병학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는 수준이었다면, 『(오위)진법』의 단계에서는 독자적인 진법훈련 방식을 창안하였다. 『(오위)진법』 「대열의주」에 정리된 6가지 훈련형은 이념적이고 형식적인 훈련으로부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훈련으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군사훈련의례, 대열, 진법훈련, 『진도법』, 『계축진설』, 『진법』, 습진, 병학

(원고투고일 : 2022. 1. 3, 심사수정일 : 2022. 2. 15, 게재확정일 : 2022. 3. 3.)

## 1. 머리말

조선 초기 유교적 의례제도를 정비하면서 군사훈련을 ‘講武’와 ‘大閱’이란 이름의 군사훈련의례<sup>1)</sup>로서 정립하였다. 이때 강무는 사냥 훈련, 대열은 진법훈련을 각각 지칭하였다. 이 두 군사훈련의례는 당연하게도 군사훈련이자 군사의례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자에 따라서 ‘군사훈련의례’의 ‘군사훈련’ 혹은 ‘군사의례’ 둘 중 한 가지 특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이어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 초기 진법훈련 의례인 대열이 정립되는 과정을 검토하여, 진법훈련을 의례이자 훈련으로서 정립하는 과정과 각 시기 진법훈련과 관련된 주된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대열은 조선의 군사훈련에 대한 검토하는 과정에서 훈련의 하나로 정리되었다. 때문에 당연하게도 군사훈련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였고, 제도사적인 관점에서 건국 초기 군사제도 정비의 결과물로서 이해되었다.<sup>2)</sup> 대열을 군사적 관점으로만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조선에서 상정하고 있는 전술과 진법을 구현하기에

1) 유교적 국가의례 체계인 오례 중 군례는 親征, 命將, 露布, 受降, 講武, 田獵, 大射(射禮), 救日蝕儀 및 儺禮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楊志剛, 『中國禮儀制度研究』,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0, 421-460쪽) 중국의 경우 국왕이 주관한 사냥을 전례으로, 훈련장에서 시행된 열병이나 진법훈련은 강무라 하여 의례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군례의 경우 실제 군사력 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4례와는 달리 군사제도나 兵學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고에서 주목한 군사훈련의례는 전시를 대비하여 평시에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예제와 군제 그리고 병학 등이 가장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군례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2) 대표적으로 육군군사연구소에서 편찬한 『한국군사사』에서 조선 전기 대열, 진법훈련, 강무 등의 군사훈련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6 - 조선전기II』, 육군본부, 2012).

대열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관심을 집중하였다.<sup>3)</sup> 이러한 관점에서 대열 정립 이전 조선의 군사훈련은 정예기병의 양성을 위해 강무의 형식이었고, 보병 및 동원된 병력으로 인해 대규모화된 군대를 정예화하고 기병과 함께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열의 정립이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다.<sup>4)</sup>

군사훈련 제도에 대한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대열, 闕武 등 특정한 훈련에 집중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백기인은 대열, 강무, 열무 등 군사훈련의 시행 횟수의 변화의 추이를 검토하여 조선 초기에는 강무, 대열과 같은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는 군사훈련이 정립되고 시행되었으나, 정치적으로 안정된 성종대 이후에는 실질적인 군사점검을 위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열무 위주의 군사훈련이 진행되었음을 보였다.<sup>5)</sup> 노영구는 조선 후기 정조대 한성에서 시행된 대열의 사례를 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선 전기 대열 시행의 추이와 군사사적 함의를 함께 정리하였다.<sup>6)</sup> 조선 전기 대외적인 위협과 군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열의 제도가 변화하는 추이를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군사훈련으로서 대열이 갖는 정치·군사적 함의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군사의례로서 대열을 다루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최근에는 조선의 군사의례를 조선 전 시기에 걸쳐 검토하여, 조선 왕조에 있어서 군례는 왕권강화나 군사적 기능보다는 국가의 유지하

3) 조선 초기 진법훈련과 진법서에 대한 연구들은 진법서의 내용과 훈련법이 가지는 기능적인 측면에 주목해왔다(河且大, 「朝鮮初期 軍事政策과 兵法書의 發展」, 『軍史』 제19호, 1989; 김광수, 「鄭道傳의 『陣法』에 대한 고찰」, 『陸士論文集』 50, 1996; 윤훈표, 「조선 세종대 진법서 편찬과 훈련체계의 개편」, 『軍史』 제81호, 2011; 광성훈, 「조선 초기 진법서의 편찬 배경과 활용」, 『역사와현실』 97, 2015).

4) 김동경, 「조선 초기의 군사전통 변화와 진법훈련」, 『군사』 74, 2010.

5) 백기인, 「조선후기 국왕의 열무 시행과 그 성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2, 2007.

6) 노영구, 「조선후기 漢城에서의 闕武시행과 그 의미-大闕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2, 2008.

게 하는 의례로서 기능하였다는 점을 부각한 연구가 제출되었다.<sup>7)</sup> 본고에서 다루는 대열과 관련한 주요한 성과로는 대열의주의 변화를 검토하고, 그 변화가 갖는 의례적 의미를 추적한 연구가 제출되었다.<sup>8)</sup> 다만 진법훈련과 관련된 내용은 의주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열의 의례적 절차와 그 행위가 갖는 의례적 상징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상의 대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군사훈련의례로서의 대열 중 군사훈련 혹은 군사의례라는 한 가지 측면에만 주목해왔다. 본 논문은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로서 정립된 대열 절차 중 진법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변화를 검토하여 그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선 초기 진법훈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태종 후반부터 조선 초기 진법에 관한 내용을 집대성한 『(오위)진법』이 편찬되었던 시기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며, 주로 『조선왕조실록』과 『세종실록』 「오례의」의 기록을 통해 각 시기별 진법훈련에 대한 논의의 중점이 무엇이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편찬되었던 일련의 진법서들의 역할과 병학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조선의 군사훈련은 군사들의 전투 기술을 단련하고,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한 일만은 아니었으며,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를 구성원들에게 각인시키는 국가의례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문치사회로 규정된 조선 사회에서 兵學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7) 이왕무, 『조선왕실의 군사의례』, 세창출판사, 2019.

8) 소순규, 「조선초 대열의의 의례 구조와 정치적 의미」, 『사총』 75, 2012.

## 2. 세종대 대열의 진법훈련 정비와 진법서의 편찬

### 가. 『진도법』과 「대열의주」 훈련법의 상충

조선 건국 초 군사훈련 제도의 정비를 주도하였던 정도전은 보병 중심의 군사훈련을 지향하여, 의례이자 훈련으로서 진법훈련을 시행하고자 하였다.<sup>9)</sup> 정도전은 『주례』의 제도에 따라 진법훈련, 사냥, 제사가 결합된 군사훈련의례를 구상하였다. 훈련관을 설치하여 병서 및 진법 교육을 전담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법훈련을 지방까지 확대하고자 시도했었다. 하지만 이는 무장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왕자의 난으로 태종 이방원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로는 한동안 진법훈련은 시행되지 않았다.

진법훈련이 다시 시행된 것은 1409년(태종 9) 3월의 일이었다.<sup>10)</sup> 당시 태종은 田甫를 虎勇侍衛司 大護軍에 임명하고 陣圖訓導官으로 삼아 군사들을 훈련하게 하였다. 정도전이 진법훈련을 했을 때 전보가 司馬로서 보좌했기 때문에 훈련을 담당하게 한 것이었다. 이는 조선 초기 진법훈련이 훈련관 등의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전승되어 국가의 공식적인 훈련법으로 정착되지 못하였고, 다만 ‘정도전이 시행했던 훈련법’ 정도로 기억되었던 당시 현실을 보여준다.

그 다음 날 柳觀, 李行, 鄭以晉를 兵書習讀提調에 임명하고,<sup>11)</sup> 전

9) 허대영, 「정도전의 『陣法』에 보이는 병학사상에 대한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92, 2020, 27-33쪽.

10)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3월 21일 갑자.

11) 이들은 태종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인물들로 특히 『태조실록』 편찬과 관련하여 태종의 뜻에 따라 편찬에 참여하였다. 당시 과거 역사 편찬은 모두 3대가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태조의 舊臣들이 실록을 편찬하면 공정성을 의심할 것이라며 대간과 史官들은 『태조실록』의 편찬에 반대하였다. 태종대 『태조실록』의

보와 堅椽, 李恪을 진도훈도관으로 삼았다.<sup>12)</sup> 다시 3일 후에는 趙大臨 등 여러 掌軍摠制들을 兵書講討摠制에 임명하여 兵書와 陣圖를 익히도록 하였다.<sup>13)</sup> 당시 진도훈도관으로 임명된 인물들은 그 이전까지 특별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데, 전보와 마찬가지로 ‘정도전이 시행했던 훈련법’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1409년 4월 ‘처음으로 陣圖를 연습하였다[始習陣圖]’<sup>14)</sup>는 기록에서 처음이라는 것은 새롭게 규정한 훈련법에 따라 처음 시행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해 4월에도 東郊에서 習陣을 실시하였다. 당시 훈련을 담당한 장군 총제 중 한 명이었던 李天祐는 진법훈련이 잘 되었으니 태종에게 친림할 것을 요청하고, 외방 시위군도 매월 번상할 때 습진하는 곳[習陣所]에서 훈련할 것을 건의하였다.<sup>15)</sup> 이를 통해 1409년 이후 최소한 중앙군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진법훈련을 시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1410년부터는 외방 시위군까지 확대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에서 도절제사에 의해 독자적인 훈련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세종 즉위 후어나 가능했다. 1420년에 전라도 도절제사가 陣圖와 陣說을 내려보내서 전라도 각 鎭에서 훈련할 수 있게 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을 보면,<sup>16)</sup> 이때까지 지방에서의 자체적인 훈련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지방의 군사훈련을 시작하고 그 규정을 만들어, 이듬해 7월에는 「諸道陣法訓導事目」이 정해져 시행되었다.<sup>17)</sup>

편찬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이정주, 「鄕以吾의 交遊 관계와 정치활동」, 『한국인물사연구』 제12호, 2009, 89-95쪽 참조.

- 12)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3월 22일 을축.
- 13)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3월 25일 무진.
- 14)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4월 13일 을유.
- 15)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4월 26일 임술.
- 16) 『세종실록』 권7, 세종 2년 3월 17일 을유.
- 17)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28일 무자.

1410년 이후로도 정례적으로 진법훈련을 시행하였는지는 명확하게 전하지 않지만 그 이후 병서 및 진법 교육이 강화되는 상황을 통해 진법훈련도 지속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진법훈련을 재개하기 전까지 태종대 병서 교육 제도는 주로 무신 관료를 대상으로 막연하게 兵書의 강습을 장려할 뿐이었다.<sup>18)</sup> 진법훈련을 실시한 뒤로 그해 11월부터는 의흥부 총제 이하 관원들은 매일 병서를 講하고 승지를 보내 이를 참고하게 하였으며,<sup>19)</sup> 훈련관에서 주관하여 무과 입격자를 대상으로 武經을 강습하고 이를 연말에 결산하여 1등을 서용하는 규정도 정하였다.<sup>20)</sup> 또, 1417년(태종 17) 5월에는 병조에서 입직한 상·대호군, 삼군 鎭撫 등을 대상으로 馬兒를 가지고 진도를 익히게 하였다.<sup>21)</sup> 이처럼 진법훈련은 태종 후반 동안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법의 훈련법이 정비되고 정기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를 국가의례의 하나로 정립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이는 세종이 즉위하고 태종이 상왕으로 있던 세종 초에 大閱의 정립으로 귀결되었다. 대열은 본래 『주례』 사시강무 중 겨울철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지칭한다. 조선에서는 진법훈련 형식의 군사훈련의례를 정립하면서 그 명칭을 차용하였다.<sup>22)</sup> 대열이 하나의 군사훈련의례로 정립되기 이전 대열이라는 말은 특정한 훈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의 훈련을 설명하는 용도로 활용되었

18) 윤훈표, 「朝鮮初期 武經講習制」, 『역사와실학』 32, 2007, 390-392쪽.

19)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11월 29일 정유.

20)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12월 21일 정미.

21)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5월 7일 임진.

22) 이는 원래 '武事를 講習하다'라는 의미의 '강무'라는 말을 조선에서는 사냥형식의 군사훈련의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에서는 태종대 이후 정립된 '국왕에 의해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사냥형식의 군사훈련'을 '강무'라고 하였다.



다. 1419년(세종 1) 10월 병조에서는 그해 11월에 사냥훈련의 레인 강무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강무는 나라의 큰 법이고, 사계절의 사냥은 법전에 실려 있으니 본래 폐해서는 안 됩니다. (중략) (강무를:필자) 거행하지 않은지 3년이나 되었고, 올 가을에도 거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미 喪制도 끝났으니, 옛날 仲冬에 大閱한다(강조:필자)는 전거에 따라 옛 제도를 준수하기를 바랍니다.<sup>23)</sup>

사실 강무를 3년동안 시행하지 않았다는 병조의 말은 사실과는 다르다.<sup>24)</sup> 병조에서 이와 같이 말한 이유는 정종이 위독하여 정지하였던 그해 가을 강무를 다시 시행하고자 했기 때문이다.<sup>25)</sup> 병조에서는 평소보다 다소 늦은 11월에 강무를 시행하는 근거로서 『주례』 겨울 훈련인 대열을 언급한 것이다.

대규모 열병과 진법훈련을 겸한 의례를 지칭하는 ‘대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1421년(세종 3)이었다.<sup>26)</sup> 1421년 4월, 향후 대열의 시행을 위해 미리 한성부의 衙門과 백관을 中衛의 5所에 어떻게 분속시킬지 논의한 후 진법연습을 시행하였다.<sup>27)</sup> 그런데 당시 진법연습에 대해 ‘이때 진도연습을 시작하였다(時始習陳[陣]圖)’라고 기록하고 있다. 진법훈련은 이미 1409년에 재개되었음은 앞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23) 『세종실록』 권5, 세종 1년 10월 29일 경자.

24) 태종 후반 강무시행 사례에 대해서는 허대영,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와 병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95-96쪽, <표 2-2> 참조.

25) 『세종실록』 권5, 세종 1년 9월 21일 계해; 10월 28일 기해; 10월 29일 경자.

26) 조선에서 대열과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이 등장한 것에는 기본적으로 당시 명과 몽골 지역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정세 변동과 그 여파로 인해 여진세력의 동향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영구, 앞의 논문, 7-8쪽.

27) 『세종실록』 권11, 세종 3년 4월 14일 병오.

이때 처음 연습하였다는 ‘陣圖’는 무엇일까? 이는 태종의 명을 받아 卞季良이 저술한 진법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변계량이 저술한 『진도법』은 1421년 7월에 완성되었다고 전하는데,<sup>28)</sup> 『진도법』 초안은 그 해 5월 이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sup>29)</sup>

1421년 5월 처음 대열을 시행한 이후 변계량의 진법론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도, 당시 대열이 변계량의 진법서에 따라 시행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때 세종은 변계량의 진법서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변계량은 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여러 병학의 진법론에 의거한 것이라며 반대하였다.<sup>30)</sup> 이에 세종은 자신의 의견과 변계량의 의견을 모두 정리하여 태종에게 보고하였다. 진법과 의례제도를 보완하여 그 해 6월 예조에서 大闕儀注를 정하였고, 이어서 7월에는 수정·보완한 『진도법』을 ‘다시’ 완성하였다.<sup>31)</sup> 『진도법』은 진법훈련의 시행과 그 방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1421년 군사훈련의례로서 大闕이 처음 시행되었다.

그런데 당시 예조에서 정한 대열의주는 唐의 전례서인 『개원례』 ‘皇帝講武’<sup>32)</sup>의 절차에 따라 군을 左廂과 右廂으로 나누어

28)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9일 기사.

29) 1421년 5월 18일에 낙천정에서 대열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실록 기사에 태종이 이보다 앞서 변계량에게 명하여 진법서를 만들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해 4월 대열을 준비할 때 도성의 아문과 백관들을 5衛-5所로 편제하였는데, 衛라는 편제명은 변계량이 사용한 것이었다. 변계량의 『陳說問答』에 따르면 그가 『진도법』을 작성할 때 참고하였던 이세현, 정도전, 하륜 등의 진법서에는 모두 衛가 아닌 軍이라는 편제명을 사용하였고, 변계량이 저술한 진서만 衛라고 칭하였다. 즉, 1421년 4월 초에 이미 『진도법』의 초본이 완성되어 이를 바탕으로 衛-所로 군을 편제하였고, ‘陣圖’연습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30)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5월 20일 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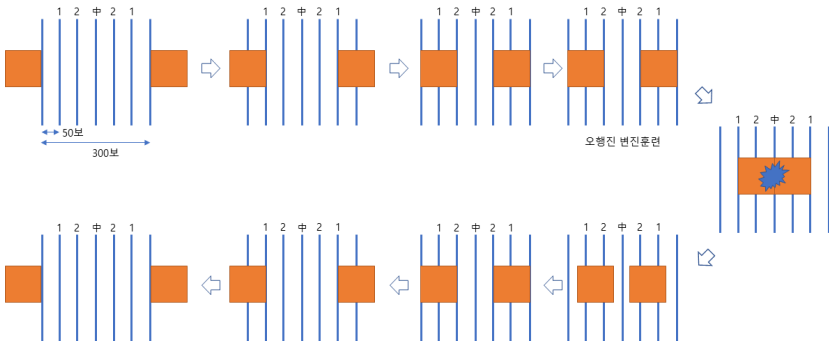
31)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6월 1일 임진 ; 7월 9일 기사.

32) 『개원례』 군례에서 講武는 진법훈련을 지칭하였고, 사냥 훈련은 ‘皇帝田狩’라 하였다.

서로 대항하는 형식인 반면, 『진도법』의 훈련법은 『주례』의 대열 절차인 ‘四表進退坐作’ 훈련<sup>33)</sup>과 같이 全軍이 함께 신호에 따라 坐作進退하는 형식이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각각의 훈련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먼저 『개원례』 황제강무의 훈련과정은 교장의 양쪽에 위치하였던 左廂과 右廂의 군사들은 신호에 따라 서로를 향해 전진하다가, 계획된 두 번째 위치[表]에 이르면 정지한다. 양군은 두 번째 위치에서 각각 오행상승지법에 따라 변진하고, 각각 변진할 때마다 양군에서는 50명씩 내보내서 교전한다. 이때 전투의 양상은 미리 계획된 형식인 勇怯, 敵均, 勝敗의 형상으로 시행하였다. 양군이 결진하고 대결하는 절차가 끝나면 전군이 교장의 ‘가운데 표[中表]’로 달려나가 전투하는 ‘모의전투’를 실시한 후 훈련 전 위치로 퇴진하면 훈련절차가 마무리된다. 세종 초 대열의주는 이러한 절차는 그대로 따랐다. 아래의 그림은 『개원례』 황제강무의 절차를 간략히 도식화한 것이다.<sup>34)</sup>

<그림 1> 『대당개원례』 皇帝講武 훈련 절차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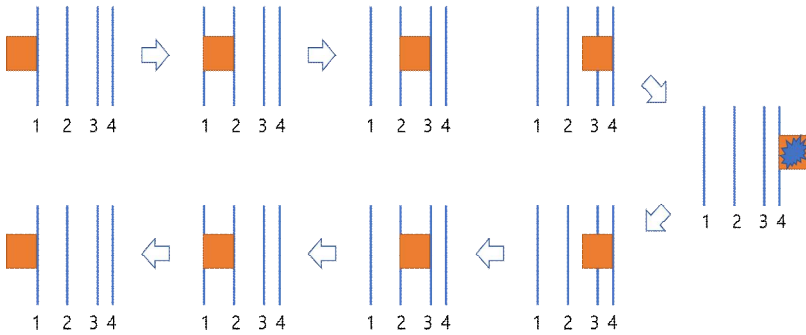


33) 『진도법』의 저술한 변계량은 정도전의 진법론을 중심으로 다른 이론을 수용하였다. 정도전은 『주례』의 군사훈련을 이상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진도법』의 훈련법 역시 『주례』의 방식을 따랐다. 『주례』의 ‘四表進退坐作’ 훈련 방식에 대해서는 허대영, 앞의 논문, 2020, 29-30쪽 참조.

34) 『通典』 卷132, 禮92 『開元禮纂類』 27 軍1 ‘皇帝講武’.

다음으로 『진도법』 훈련은 『주례』의 방식과 유사하여, 훈련장에 4개의 표식을 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표식까지 나가면서 坐作하고, 4표에서는 군사들은 3차례 공격하는 동작으로 보병과 기병이 각각 旋鬪·旋馳한다. 이후 정지신호에 정지하고 퇴진신호에 따라 네 번째에서 첫 번째 표식까지 되돌아온다. 『주례』와의 차이는 車兵이 아닌 騎兵을 운용한다는 점이다. 『개원례』, 즉 대열의주와의 차이는 군을 둘로 나누어 모의전투하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의 부대로 운용하는 훈련이라는 점이다. 『주례』의 훈련방식으로 채용한 『진도법』 훈련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진도법』 교장 훈련 절차 개념도



1421년 최초의 대열 이후 훈련 방식을 『주례』의 방식에서 唐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대열의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열의주가 만들어지고 한 달이 지난 후 『진도법』을 공포하였음에도 『진도법』에는 여전히 『주례』의 방식을 수록하였던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군사훈련의례인 대열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예조에서 작성한 의주가 관장하는 영역과 진법서에서 관장하는 영역이 달랐기 때문이라 생

각된다. 즉, 예조는 대열의 의례 절차를 정비하여 의주를 작성하였는데, 『개원례』 ‘황제강무’에서 관직과 관서의 명칭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정도였다. 대열의를 시행할 때 의장과 전반적인 의례 절차는 의주를 따랐으나 구체적인 진법훈련의 내용과 절차는 진법서에 따라 시행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세종대 대열의주에는 『개원례』 ‘황제강무’에서 구체적인 훈련방법을 설명한 부분들은 생략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먼저 대열 하루 전에는 장수들이 미리 군사들을 교육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조선의 경우 다만 깃발과 金鼓의 신호를 교육한다고 하였다. 반면 『개원례』의 경우 진법을 편성하는 규정에 대해서 ‘긴 사람은 궁시를 잡고, 짧은 사람은 戈矛를 잡으며, 힘이 있는 자는 旌旗를 잡고, 용맹한 자는 鉦鼓를 잡는다.’, ‘칼과 방패가 前行이 되고, 창 잡은 자가 그 다음, 활이 後行이 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sup>35)</sup> 이는 진의 편성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긴 사람은 궁시를 잡고’ 등의 내용은 무경칠서 중 하나인 『吳子』 「治兵」 「教戰之令」의 내용이다. 고전적인 내용으로 현실과는 맞지 않는 면이 있었다. 또 병종별 배치에 관한 내용도 조선의 경우 火桶手와 騎兵 등의 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군사적 내용에 대한 판단을 예조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주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하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오행변진 훈련의 경우 『개원례』는 좌군과 우군이 서로 번갈아가며 오행의 속성에 相生, 相剋하는 진형으로 변진하는 방식이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35) 『通典』 卷132 禮92 『開元禮纂類』 27 軍1 ‘皇帝講武’ “前一日(중략) 凡教爲陣 少者在前 長者在後 其還則長者在前 少者在後 長者持弓矢 短者持戈矛 力者持旌旗 勇者持鉦鼓 刀楯爲前行 持稍者次之 弓箭爲後行 將帥先教士衆 習見族旗指麾之蹤 旗臥卽跪 旗舉卽起 金鼓動止之節 聲鼓卽進 鳴金卽止”.

『개원례』 황제강무 중 五行變陣 절차<sup>36)</sup>

- 東軍이 북을 치고 靑旗를 들어 直陣이 되면, 西軍은 북을 치고 白旗를 들어 方陣이 되어 응한다.
- 서군이 북을 치고 赤旗를 들어 銳陣이 되면, 동군은 북을 치고 黑旗를 들어 曲陣이 되어 응한다.
- 동군이 북을 치고 黃旗를 들어 圓陣이 되면, 서군은 북을 치고 靑旗를 들어 直陣이 되어 응한다.
- 서군이 북을 치고 白旗를 들어 方陣이 되면, 동군은 북을 치고 赤旗를 들어 銳陣이 되어 응한다.
- 동군이 북을 치고 黑旗를 들어 曲陣이 되면, 서군은 북을 치고 黃旗를 들어 圓陣이 되어 응한다.

양군은 서로 主客을 바꾸어가며 진형을 바꾸는데, 먼저 진을 형성하는 쪽이 主가 되고 응하는 쪽인 客이 된다. 主軍의 진형의 순서는 기본 진형인 木性의 直陣으로 시작하여 木火土金水의 오행 상생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客軍은 이에 응하여 主軍의 속성에 상극하는 진형으로 변진하였다. 이러한 오행 변진은 오행론에 따른 이념적이고 형식적인 훈련이기도 했지만, 때면 진형을 바꿀 때마다 기본 진형인 直陣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변진하였으므로 양군이 총 10여 회 진형을 변경하여 번거로웠다. 이러한 내용이 의주에 실리지 않았던 것 역시 구체적인 훈련법이기에 때문에 예조에서 다룰 영역이 아니기도 했고, 『진도법』의 훈련 방식과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도법』 結陣 항목의 오행진 변진을 살펴보자.

---

36) 『通典』 卷132 禮92 「開元禮纂類」 27 軍1 ‘皇帝講武’ “東軍 一鼓舉靑旗 爲直陣 西軍 亦鼓而舉白旗 爲方陣 以應之 次南[西]軍 一鼓而舉赤旗 爲銳陣 北[東]軍 亦鼓而舉黑旗 爲曲陣 以應之 次東軍 鼓而舉黃旗 爲圓陣 西軍 亦鼓而舉靑旗 爲直陣 以應之 次西軍 鼓而舉白旗 爲方陣 東軍 亦鼓而舉赤旗 爲銳陣 以應之 次東軍 鼓而舉黑旗 爲曲陣 西軍 亦鼓而舉黃旗 爲圓陣 以應之”.

『진도법』 結陣<sup>37)</sup>

- 中衛를 중심으로 사방에 각 위가 위치하여 방위에 따라 진을 형성(中衛는 圓陣, 左衛는 直陣, 前衛는 銳陣, 右衛는 方陣, 後衛는 曲陣).
- 中衛의 5개의 기를 모두 눕히고[俱臥], 북을 치고 白旗를 點하면, 5위 모두 方陣으로 變陣.
- 中衛의 5개의 기를 합치고, 북을 치고 白旗를 點하면, 4위를 中衛에 합하여 방진을 이룬.
- 中衛에서 黑旗를 點하고 북을 치면, 曲陣으로 변진.
- (中衛에서) 靑旗를 點하고 북을 치면, 直陣으로 변진.
- (中衛에서) 赤旗를 點하고 북을 치면, 銳陣으로 변진.
- (中衛에서) 黃旗를 點하고 북을 치면, 圓陣으로 변진.
- (中衛에서) 白旗를 點하고 북을 치면, 方陣으로 변진.

위와 같이 『진도법』의 오행변진은 전군이 하나로 合陣하여 진을 이룬 후 方陣부터 圓陣까지 다섯 가지 진형을 오행상생의 차례로 변진하여 마무리하였다. 조선의 방식이 唐의 방식에 비하여 간략하다. 이런 상황을 보면 예조에서는 구체적인 군사훈련 방법을 다룬 부분은 제외하고, 의식 절차와 관련된 부분만 다루었던 것이며, 훈련절차는 병조의 업무로서 그 내용은 진법서에서 다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8)</sup>

이는 1431년(세종 13) 세종은 許稠와 대열 중 국왕과 시위하는 신료들의 복장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대열의 제도는 오로지 宋의 제도를 취하였다.”고 말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39)</sup> 세

37)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9일 기사.

38) 후대이지만 『國朝五禮儀』 ‘大閱儀’에 구체적인 의주를 기록하지 않고 다만 “병전과 『진법』을 보라(見兵典及陣法)”고 설명한 것도 이와 관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39) 『세종실록』 권54, 세종 13년 10월 15일 병오.

중은 대열의 제도는 宋制를 따랐다고 하였으나 전체적인 훈련절차는 唐制를 따르고 있었다. 宋代 閱武의 훈련 절차는 唐의 ‘황제강무’와는 전혀 달랐다.<sup>40)</sup> 세종대 대열의주에서 宋의 제도를 따른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크게 2가지인데, 대열할 때 국왕은 鎧甲을 착용하고 문무백관은 갑주를 갖추는 것과 대열 훈련을 마친 후 茶床을 받고 의례에 참여한 인원들과 飲酒하고 賜恩하는 예를 행하는 것이 宋의 제도를 따른 것이었다.<sup>41)</sup> 그러므로 세종이 대열의 제도는 오로지 宋制를 따랐다고 말한 것은 훈련 과정이 아닌 사전·사후 의례 절차에 한정된 것이다. 이는 당시 大閱儀의 의례 절차와 훈련 절차를 구분하여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결국 조선 초기 대열의 진법훈련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편찬된 진법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진법훈련의 변화와 『계축진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 나. 진법서와 의주의 훈련 방식 융합, 『계축진설』의 편찬

최초 대열 시행 이후 진법훈련은 모의전투 형식으로 변화해나갔으며, 이는 1433년(세종 15) 『癸丑陣說』에 반영되었다. 『계축진설』은 1433년(세종 15) 4월 파저강 정벌 직후인 그해 7월에 편찬되었다.<sup>42)</sup> 기존 연구에서는 『계축진설』은 파저강 정벌의 실전 경험을 통해 실용적인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평가하였다.<sup>43)</sup> 이러한 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법훈련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이미 1424년

40) 송대 閱武 절차에 대해서는 허대영, 앞의 논문, 2021, 28쪽 참조.

41) 세종대 대열의주에 의하면 대열 의례를 마친 후 국왕은 小次에서 갑옷을 벗어놓고, 大次로 나아가서 茶床을 올렸다. 唐 『개원례』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없었으나, 宋의 제도에는 훈련 이후 신료들과 술을 주고받는 의례를 동반하였다(『宋史』 卷121, 禮志24).

42)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4일 을묘.

43) 하차대, 앞의 논문, 122-134쪽, 윤훈표, 앞의 논문, 2011, 94-105쪽.



부터 훈련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계축진설』의 편찬은 『진도법』과 대열의주의 훈련법을 적절히 조합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1424년 9월 대열을 준비하면서 左·右廂에서 사용할 깃발을 제작하였던 것을 보면,<sup>44)</sup> 이때 이미 ‘四表坐作進退’의 훈련이 아닌 좌·우상의 모의전투 형식을 차용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45)</sup> 1426년(세종 8) 대열에서도 군을 둘로 나누어 진형을 변진하는 훈련을 5차례 시행하고, 변진할 때 마다 서로 모의전투를 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sup>46)</sup> 하지만 이는 단순히 『진도법』의 방식을 대열의주의 방식으로 바꾼 것이 아니었다. 본래 의주대로라면 모의전투는 서로 칼날을 부딪치지 않고 싸우는 척[擬擊]하는 것이었지만 당시 대열에서는 격한 전투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화포를 사용하여 인마가 상하기도 하였다.<sup>47)</sup>

당시 대간들은 훈련을 의주대로 시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일과 또 양군이 결투하여 이긴 측이 상대편 군사들을 포로로 잡아 마치 수급을 바치듯이 국왕에게 보고하였던 일 등이 국왕을 공경하는 예의가 아니라며 대열 때 군사들을 지휘한 崔潤德 등을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당시 세종은 이러한 훈련 방식 자체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 다만 훈련 중 복을 치면 진군하고 징을 치면 정지하는 신호체계에 따른 움직임이 절도가 부족하였음을 지적할 뿐이었다.<sup>48)</sup> 때문에 대열 당시 지휘한 장

44) 『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 9월 10일 임오.

45) 반면에 의례의 절차는 1421년 처음 정해진 후 1424년에 왕세자 관련한 의례 절차를 추가하고, 국왕에 대한 拜禮를 변경하였을 뿐 그 외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최종적으로 『세종실록』 오례에 정리되었는데, 이때에도 훈련과정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사건과 사후의례의 출궁 및 환궁 절차를 경복궁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을 뿐이다.

46) 『세종실록』 권33, 세종 8년 9월 24일 갑인.

47) 『세종실록』 권34, 세종 8년 10월 1일 신유 ; 10월 3일 계해.

48) 『세종실록』 권33, 세종 8년 9월 24일 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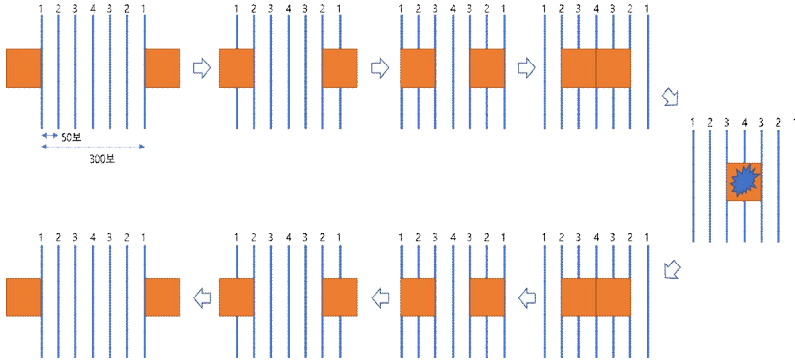
수들의 처벌은 윤택하지 않았고, 직접 훈련을 담당하였던 사람만 처벌하였다. 즉, 대열의 전체적인 절차는 모의 전투 형식으로 변화하였지만, 구체적인 훈련의 방식은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용되었던 것이다.

『계축진설』에서는 변화된 훈련 방식을 반영하여 모의전투 형식으로 정리하되, 『주례』를 따른 『진도법』과 唐制를 따른 의주를 결합하였다. 『계축진설』 敎場條에서는 먼저 한 면이 1,200步인 방형의 교장을 교장의 규격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唐 군사훈련의 교장 규격이었다. 1,200步라는 교장의 크기는 唐의 군사훈련 때 左廂과 右廂의 군대를 각각 3군으로 편성하여, 총 6군을 훈련하기 위해 정해진 크기였다. 양군은 300보 거리를 두고 배치되었고, 그 사이에는 50보 간격으로 총 5개의 표가 만들어졌다. 훈련장의 규격이나 모의전투라는 전반적인 틀은 唐制를 따랐다면, 그 안에서 진퇴좌작하는 방식은 『주례』 방식을 적용하였다.

『계축진설』에서 양측의 부대는 첫 번째 표식에서 네 번째 표식까지 3차례 전진한다. 그런데 양쪽 부대가 50보씩 3차례 전진하면 아래의 개념도처럼 가운데 지점에서 양군이 이미 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달려나가서 전투하는 의미가 없게 된다. 앞서 살펴본 당의 제도는 양쪽에서 2차례만 전진하고 나서 100보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가운데 지점으로 달려나가 전투하였다.<sup>49)</sup> 『계축진설』 교장의 훈련 절차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49) 『通典』 卷132 禮92 『開元禮纂類』 卷27 軍1 ‘皇帝講武’.

<그림 3> 『계축진설』 교장 훈련 절차 개념도



1421년과 1424년 예조에서 제출한 대열의주는 이미 당 『개원례』의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양군이 2차례만 전진하고 물러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의주대로 시행해왔다면 1433년 『계축진설』을 만들 때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군사훈련으로서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자면, 의주의 훈련법이 더 낫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축진설』에서 위와 같은 훈련법을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도법』과 대열의주의 훈련법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주례』의 제도와 唐制를 이상적으로 조합하는 일이었다.

의주 훈련법의 핵심이 좌우상으로 나누어 모의전투하는 것에 있다면, 『주례』의 핵심은 ‘4표좌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주에서는 300보 사이에 50보마다 5개의 표를 두고 1표와 2표 그리고 中表의 3표를 좌작하였지만, 『계축진설』에서는 300보 떨어진 최초의 위치를 1표라 하고 가운데 위치한 中表를 4표로 보아 ‘4표좌작’의 훈련법을 실현한 것이다. 즉, 『계축진설』의 훈련법은 실전적인 방식에 대한 고려보다는 『계축진설』은 조선

초 이래 조선의 전통적인 군사훈련 방식과 『개원례』의 의주를 결합하여 진법훈련의례의 제도를 정립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실제 훈련에서는 1424년이나 1426년의 훈련처럼 실전과 같이 격렬한 훈련을 시행할지라도 진법서의 훈련법은 이론적으로 완결성을 갖추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는 古典 진법이라고 할 수 있는 五行陣과 五陣체제를 군사훈련에 및 실제 군사편제에 적용하고자 했던 일관적인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계축진설』 편찬 이후 훈련뿐 아니라 실제 군 편제에서도 五陣체제를 적용하고자 했지만 실제 현장에 이를 적용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1434년(세종 16) 함길도 감사와 도절제사는 『계축진설』의 진법체계를 실전에 적용하는 일의 문제를 제기하였다.<sup>50)</sup> 그들은 “野人들은 특정한 진형을 이루지 않고 새처럼 흩어지고 구름처럼 움직이는데, 적이 많을 경우 이들을 포위할 수가 없고, 적이 적은 경우 흩어진 상태로 나무와 돌에 의지해 강궁을 쏘기 때문에 벌떼처럼 진을 치고 모여있는 아군은 적의 공격에 취약하다.”고 하였다. 즉, 실제 상황에서 진법을 이루어서 전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적을 상대하는 데에 불리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축진설』의 5인 1伍 체제가 아니라 3인 1伍의 체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여진 세력과 마찬가지로 군사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산개하여 전투를 수행하자는 것으로, 이전까지 북방 지역에서의 전투 양상이 대체로 이와 같았을 것이다.

조선 초기 양계지역은 軍翼道마다 중·좌·우의 3翼을 두는 3익 체제였으며, 그 아래도 중·좌·우의 3所를 두는 3진법의 체제로 편제가 이루어졌다.<sup>51)</sup> 翼의 군사는 千戶와 百戶가 파악하고 지

50)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26일 계유.

51) 조선 초 양계지역의 군익도체제와 익군의 편성에 대해서는 오중록, 『여말선초 지방군제연구』, 국학자료원, 2014, 177-188쪽 ; 351-377쪽 참조.

휘하였는데, 이들은 戶首와 奉足の 구분 없이 각각 軍丁 1,000명을 천호가, 100명을 백호가 지휘했다. 正軍만을 고려하면 천호가 160~240명, 백호가 20명을 지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계축진설』 이전의 양계지역의 군 편제는 소규모로 이루어졌었고,<sup>52)</sup> 1434년 함길도 감사와 도절제사의 문제 제기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

하지만 세종은 전투 때에만 3인을 오로 하는 것은 평상시 훈련제도와 통일되지 않아서 오히려 불편할 것이니 結陣과 行陣시의 운용방법도 고려하여 다시 아뢰도록 한다.<sup>53)</sup> 세종은 오진체제와 5인을 단위로 하는 군 편제를 정합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듬해에 세종의 의지대로 5인으로 伍를 만드는 것으로 수정하되, 그 중 1명은 전투할 때 伍의 군사들이 말에서 내리면, 그들의 戰馬를 관리하는 인원으로 정하였다.<sup>54)</sup> 즉, 전투시 편제를 4인 1伍로 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필요에 따라 장수가 전마를 관리하는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였던 것을 보면, 사실상 3인을 기본 편제로 정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5인 단위의 군 편제를 형성하되, 실전에서는 장수의 운용에 따라 소규모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계축진설』 이 실전 경험을 훈련에 적용하기 위한 병서라기보다는 이상적인 진법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52) 세종대 남부지역 시위패는 50명 단위의 總牌와 25명 단위의 小牌로 구성되었는데, 1438년(세종 20) 함길도에서 隣保法을 실시하여 총패[100호]-두목[50호]-통주[10호]의 조직을 갖추었다. 즉, 총패는 백호와 같은 크기의 단위로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세종 후반 5진법 체제로 군 편제를 갖추기 이전 백호가 20명 정도의 正軍을 지휘하였던 것을 보면 『계축진설』의 편제와 비교하여 절반 이하의 소규모 단위로 군사를 운용하였던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판단된다.

53)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26일 계유.

54)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16일 병진.

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계축진설』은 과거강 정벌 직후에 작성되었다는 점과 과거강 정벌에 참여한 武臣이었던 하경복이 편찬작업에 참여했다는 정황을 통해 전투 경험을 반영한 병서로 판단해왔다.

하지만 편찬작업에 참여한 인물 중 하경복을 제외한 鄭招, 鄭欽之, 皇甫仁 등은 文臣이었으며, 정초와 정흠지는 曆法 전문가이기도 하였다. 역법 전문가들이 병서 편찬과정에 참여하였던 것은 조선 초기에는 天文과 관련된 지식도 병학의 하나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초에 『太一算』을 병학의 하나로서 중시하여, 武學의 교재로서 활용하기도 하였다.<sup>55)</sup> 게다가 세종은 兵學에 있어서 天時와 地利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陰陽·術數를 폐할 수는 없다고 여겼다.<sup>56)</sup> 정초와 정흠지는 진법서 개정작업에서 용병이나 전술과 같은 내용보다는 五行의 이론을 진법에 적용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종대 편찬한 『(오위)진법』의 경우 진법 훈련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할 경험이 많은 金孝誠, 黃守身, 趙由禮, 金有銑 등이 다수 참여하였으며, 陰陽이나 曆學과 관련한 인물은 보이지 않는 점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

### 3. 『(오위)진법』의 편찬과 진법훈련 변화

#### 가. 진법훈련 개선 논의와 『(오위)진법』 편찬

세종대 『신도법』, 『계축진설』의 편찬을 통해 군사훈련의례인 대열

55)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12월 10일 을해; 『세종실록』 권47, 세종 12년 3월 18일 무오.

56) 『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 7월 12일 경자.

의 진법훈련 절차가 정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진법의 운용 원리와 훈련법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질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진법훈련의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군사훈련 형식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문종 즉위 이후부터이다. 문종은 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재위기간 동안 군사방면으로 다양한 업적을 남겼던 국왕으로 알려져 있다. 문종은 이미 세자시절부터 강무를 代行하거나, 모의 전투 형식의 수군 훈련을 실시하였다.<sup>57)</sup> 그리고 총통군의 火器 운용을 시험하는 등 軍務에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sup>58)</sup> 문종은 일찍이 수양대군과 군사훈련에 대해 논하면서 대열의 훈련 제도가 너무 간략하다는 수양대군의 비판에 동조하며 마치 장난[幻戲] 같다고 평하기도 하였다.<sup>59)</sup> 문종은 당시 진법과 대열 등의 훈련제도에 만족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종은 기존의 진법 및 훈련제도의 개선을 위해 黃守身에게 진법훈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명하였다.<sup>60)</sup> 그로부터 약 한달 후 황수신은 기존 진법훈련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습진할 때 오직 遊軍과 敵의 공격을 받는 면의 군졸만이 움직여 나아가 싸우고 물러나 지키는 형상을 하고, 그 나머지 사졸들은 陣列을 지키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들이 생각하기를, 진법의 싸우고 지키는 방법은 다만 이와 같다고 여기며, 行軍의 緩急과 나아가고 물러나며 모이고 흩어지는 법은 전혀 익히지 않으니 심히 불가합니다. 지금부터는 매번 습진 하는 날에 ㉠진을 과하고 돌아올 때 行陣을 이루어 기휘금고의 신호에

57) 『세종실록』 권106, 세종 26년 10월 20일 을축; 권107, 세종 27년 3월 2일 을해.

58) 『세종실록』 권108, 세종 27년 5월 25일 무술; 6월 3일 을사.

59) 『세조실록』 권1, 충서.

60) 『문종실록』 권3, 문종 즉위년 8월 12일 계미.

따라 전진하고 퇴각하는 절도를 익히는 것을 恒式으로 삼고, 그 25變陣은 매월 초2일, 12일, 22일에 돌아가면서 연습하도록 하되, 병조, 도진무, 훈련 제조는 장부에 기록하고 서명하여 후일의 근거로 삼게 하소서.<sup>61)</sup>

황수신은 현행 진법훈련의 문제점으로 훈련할 때 遊軍과 적의 공격을 받는 면의 군사만 전투 훈련을 수행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전투에 참여한 군사들 이외 대부분의 군사들은 진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 실제 전투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진법훈련이 정해진 대열의 절차에 의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상황을 보여준다. 세종 초 대열에서는 오히려 儀注에 따르지 않은 실전과 같은 훈련이 문제였던 것<sup>62)</sup>과는 반대로 의주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훈련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즉, 훈련의 방식이 너무 단순하여 실전에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左·右廂의 군사들이 좌작하며 중표까지 나아가서 오행진의 변진훈련을 한 뒤, 勇怯, 敵均, 勝敗 등의 형식에 따라 모의전투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때 의주대로라면 좌·우상에서 각 50명의 선발된 군사들만 모의 전투에 참여하였다. 게다가 이들은 서로 싸우는 시늉[擬擊]만 할 뿐이었다. 나머지 군사들은 다만 처음에 전군이 坐作進退할 때 잠시 움직일 뿐 그 외의 훈련이 진행될 때에는 단지 隊伍를 갖춘 채 서있기만 했던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열의 절차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지만, 세종대 정립된 의주를 가볍게 바꿀 수는 없었다. 황수신이 진법훈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수정 방안을 제시하

61) 『문종실록』 권3, 문종 즉위년 9월 19일 경신.

62) 『세종실록』 권34, 세종 8년 10월 1일 신유.



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은 황수신이 제시한 진법훈련 개선방안인데, 習陣을 마치고 돌아올 때 旗麾金鼓에 따라 진퇴의 절도를 익히게 하자는 것과 매월 3회씩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25변진의 훈련을 실시하자고 하였다. 그런데 신호에 따라 좌작진퇴하는 훈련이란 『주례』에 나오는 군사훈련의 기본적인 이념이고, 25변진의 훈련은 기존에 해오던 오행진의 변진훈련을 뜻하는 것이었다. 황수신은 진법훈련과 관련한 원론적인 내용을 말하였을 뿐 구체적인 군사훈련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진법훈련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 같다. 그 해 10월 황수신은 다시 기존 진법서를 검토하여, 적을 상대할 때 槍과 長劍을 사용하는 보병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보병이 적으니 步卒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63)</sup> 또 평상시 습진할 때 기병에게 보병의 훈련을 시켜서 유사시에 보병으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기존의 진법 이론에서 병종에 따라 역할이 고정되어 있던 것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조치였다. 문종은 보병의 중요성에 대한 황수신의 의견을 수용하여 防牌軍과 攝六十을 보병으로 더하게 하였지만, 기병에게 보병 훈련을 시키는 일은 시행하지 않았다. 1450년(문종 즉위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진법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은 문종대 습진, 親閱 등의 군사훈련에 적용되었다. 1450년 11월 東郊에서 2,500명의 마병과 보병을 동원하여 親閱을 하였다.<sup>64)</sup> 그 다음해에도 진법훈련에 대한 문종의 관심은 계속되었다.

63) 『문종실록』 권4, 문종 즉위년 10월 21일 신묘.

64) 『문종실록』 권4, 문종 즉위년 11월 20일 경신.

특히 1451년(문종 1) 1월 오이라트 에센[也先]의 군세가 변방지역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요동을 통해 전달되어 대외적 긴장이 고조되었다.<sup>65)</sup> 서몽골 지역을 장악한 에센은 1436년 경 부터 동몽골로 세력을 확장하였고, 1449년에는 명과 말무역 문제를 계기로 대립하기 시작하면서 섬서, 산서, 요동 일대를 침공하였다.<sup>66)</sup> 명 영종은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親征을 나섰다가 패배하고, 토목보에서 포로가 되었다. 명 황제가 포로가 된 초유의 사태는 명 중심 국제질서에 동조하고 있던 여러 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다. 조선에서는 이 사건의 여파가 조선에 미쳐 전란에 휩싸일 것을 염려하였고, 방어전략 및 군사제도를 정비하였다.<sup>67)</sup>

문종은 대외적인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아 진법훈련 시행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해 1월 16일 모화관에서 습진에 친림하였는데, 당시 습진에서는 군사 700여명을 左·右廂으로 나누어 ‘勝敗之狀’을 이루었다.<sup>68)</sup> ‘승패지상’은 대열의에서 행하는 모의 전투 양식 중 하나이다. 문종대 습진은 그 규모는 작았지만 국왕이 친림하였고 그 내용도 대열의 훈련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대열과 유사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문종은 공식적인 의례로서 강무나 대열을 대신하여 습진을 통해 대열의의 절차에 따른 군사훈련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문종 초 진법훈련 개선을 위한 일련의 노력은 1451년 『(오위)진법』의 초본이라 할 수 있는 『新陣法』의 완성으로 결실을 맺었다.<sup>69)</sup> 편찬 작업에는 문종 초부터 진법훈련의 개선작업

65) 『문종실록』 권5, 문종 1년 1월 4일 갑진.

66) 에센의 세력 확장과정은 박원호, 「15세기 東아시아 정세」 『明初期朝鮮關係史研究』 일조각, 2002 250-253쪽 참조.

67) 오이라트의 위협과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에 대해서는 임용환, 「오이라트의 위협과 조선의 방어전략-진관체제 성립의 역사적 배경-」 『역사와실학』 46, 2011, 43-49쪽 참조.

68) 『문종실록』 권5, 문종 1년 1월 16일 병진.

을 이끈 황수신을 비롯해서 『계축진설』의 편찬 과정에 참여하였던 鄭麟趾가 참여하였다.<sup>70)</sup> 그 외에 편찬 작업에 참여한 인물 중에는 金孝誠, 趙由禮, 金有銑 등 여러 무신들도 참여하였는데, 그 중 김효성은 세종대에 『太公兵法』에 근거하여 兵車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sup>71)</sup> 문종 즉위 후에도 여진 방비를 위한 대책을 상소할 때 여러 병서를 인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특히 병학에 밝았던 것 같다.<sup>72)</sup>

『(오위)진법』은 조선 전기 진법서를 집대성한 병서로 그 내용의 발전뿐 아니라 독립적인 병서로서 체계를 갖추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진도법』과 『계축진설』은 대열의의 훈련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훈련의 절차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었다.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인 군사 편제, 신호체계 등을 따로 편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하여 『(오위)진법』은 分數, 形名, 結陣式, 用兵, 軍令, 章標, 大閱儀注로 편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오위)진법』의 대열의주는 전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으로 구성되었다. 『(오위)진법』 「대열의주」는 禮書의 의주와는 그 성격이 달라 대열의 중 군사훈련과 관련된 절차만 다루고 있다. 즉, 진법서로서 의주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세종대 대열의와 『(오위)진법』 「대열의주」의 차이를 중심으로 『(오위)진법』 훈련법의 특징을 살펴보자.

세종대 대열의의 군사훈련절차는 ‘蜚 - 전진 - 결진 - 모의전투 - 퇴진’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나, 『(오위)진법』 대열의는 ‘蜚 - 용겁·승패 형식 훈련’으로 변화하였다. 구체적인 변화내용

69) 『문종실록』 권5, 문종 1년 1월 20일 경신 ; 권8, 문종 1년 6월 19일 병술.

70) 『진법』 序.

71) 『세종실록』 권99, 세종 25년 2월 14일 경자.

72) 『문종실록』 권2, 문종 즉위년 7월 18일 경신.

을 대열의 진행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우선 군사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행하는 깃는 『(오위)진법』 대열의에서도 시행하였다. 하지만 세종대 대열의는 좌군과 우군의 大將이 諸將에게 誓辭<sup>73)</sup>를 전달하면, 그 아래 군사들에게는 좌군과 우군의 伺候 각각 2명이 전파하였다. 이에 반해 『(오위)진법』에서는 ‘대장 - 위장 - 부장·遊軍將 - 통장·領將 - 이하 부대’로 하위부대까지 각급 지휘관이 그 위계에 따라 하급지휘관에게 직접 誓辭를 전파했다.

『(오위)진법』의 誓辭 전파방식은 세종대의 그것과 비교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명령할 상급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의례적으로도 대장으로부터 하급부대까지 지휘계통을 명확히 보여주어, 군의 위엄을 세우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세종대 대열의에서는 깃를 행한 후 오행진 변진 훈련을 하였다. 이 오행진 변진 훈련은 형식적·의례적 성격이 강했고, 실질적인 훈련 효과는 적은 편이었다. 『(오위)진법』 「대열의주」에서는 이 절차는 생략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오위)진법』 「五衛連陣」에 “五陣의 相生·相克은 그 유래가 오래 되었으나 그러나 교습하기가 참으로 어려우므로, 이제 權道로 간편함을 좇아서 方陣만을 연습하는 것이 옳다.”<sup>74)</sup>라고 한 것이 참고가 된다. 앞서 세종대 진법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唐의 오행변진과 비교하여 조선에서의 오행변진 훈련은 비교적 간략하였다. 그럼에도 교습이 어렵다고 한 것은 오행의 속성에 따른 진형의 승패는 실질적인 전투에서 승리와 패배를 의미하기 보다는 이념적인 것

73) 깃는 출정하는 장수들은 군주에게 군사를 지휘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후 출군 전에 군법을 공표하는 의례이다. 깃의 시행은 군사들에게 앞으로는 일상적인 법이 아닌 군법에 의해서 일이 처리될 것이며, 그 책임자가 장수임을 각인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將帥에 의한 깃의 반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최상기, 『新羅 將軍制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119-142쪽 참조.

74) 『진법』 「五衛連陣」.

이기 때문에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 나. 『(오위)진법』 대열의주의 훈련 방식

『(오위)진법』 「대열의주」에서는 쫓 이후 모의전투 훈련을 시행하였다. 모의전투는 勇怯之勢 3가지와 勝敗之形 3가지로 총 6가지 형식이 있었다.<sup>75)</sup> 『(오위)진법』에서는 용겁과 승패의 구분은 모의전투의 결과 상대측 군사를 축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경우는 ‘용겁지세’, 상대측 군사를 완전히 섬멸하여 승패를 맺는 과정을 포함한 경우는 ‘승패지형’이라 하여 구분한 것 같다. 그 훈련 방식을 살펴보면, ‘용겁지세 1’과 ‘용겁지세 2’, ‘용겁지세 3’과 ‘승패지형 1’, ‘승패지형 2’와 ‘승패지형 3’으로 각각 짝을 지을 수 있다. 그럼 각각의 훈련 절차의 내용을 검토해보자.

<표 1> 『(오위)진법』 大閱儀注 ‘용겁지세 1’·‘용겁지세 2’의 절차

용겁지세 1	용겁지세 2
○ 結陣 좌·우군 300보 거리를 두고 마주보며 결진	○ 결진 좌·우군 300보 거리를 두고 마주보며 결진
○ 전진 좌·우군 前衛 5部の 騎·步戰統과 遊軍 3領, 좌작진되 하면 1~2표까지 전진 후 정립	○ 전진 좌·우군 前衛 5部の 騎·步戰統과 遊軍 3領, 좌작진되 하면 1~2표까지 전진 후 정립
○ 合戰 전투신호에 따라 騎·步戰統 合戰 遊軍 대기하며 소리로 勢를 도움 매 합전마다 6,7회 접전, 총 3회 합전	○ 합전 전투신호에 따라 騎·步戰統 合戰 遊軍 대기하며 소리로 勢를 도움 매 합전마다 6,7회 접전, 총 3회 합전

75) 『문종실록』 권8, 문종 1년 6월 19일 병술 ; 『陣法』 「大閱儀註」.

용겹지세 1	용겹지세 2
<p>○ 퇴진 양군이 신호에 따라 함께 물러남 매 퇴진 마다 20보씩 물러나 賈勇의 형세를 보임, 총 3회 퇴진과 賈勇 대기 중인 遊軍과 합류하여 본진으로 복귀 유군은 본진 복귀시 후방을 경계</p>	<p>○ 퇴진 패배하는 부대[負軍]가 물러나기 시작하면, 負軍의 遊軍이 나아가 구원 負軍 유군에 대응하여 勝軍 유군도 나아가 합진 負軍은 방어하며 퇴각 勝軍은 負軍 본진 앞에서 賈勇의 형세를 보임 勝軍 20보씩 물러나며 고용의 형세를 보이고, 본진으로 들어감 (물러날 때 양군 유군은 후방을 경계)</p>

위의 <표 1>은 『(오위)진법』 「대열의주」의 용겹지세 1과 2의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sup>76)</sup> ‘용겹지세 1’과 ‘용겹지세 2’는 기존 세종대 대열의 군사훈련 절차를 변용한 훈련 방식이다. 다시 말해 『개원례』 ‘황제강무’ 절차를 기본으로 양군이 좌우에서 진을 치고 신호에 따라 좌작하며 전진하여 훈련장 가운데에서 접전을 하는 훈련이다. 두 훈련의 차이는 ‘용겹지세 1’은 양군이 3회 합전한 뒤 승패를 가리지 않고 신호에 따라 본진으로 복귀하고, ‘용겹지세 2’는 양군이 처음 진을 펼쳤을 때 양측 진형의 오행상승 원리에 따라 승패를 미리 정해놓고, 합진 후 패배하여 물러나는 군대를 승리하는 군대가 추격하였다가 돌아오는 점이었다.

‘용겹지세 1’의 전체적인 절차는 세종대 대열의주의 훈련 절차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세종대의 훈련 규정에는 양군은 전투를 하는 척[擬擊]만 했다면, 『(오위)진법』에서는 실제 6~7차례

76) 결진, 전진 등 각 절차의 제목은 필자가 훈련 내용에 따라 구분을 위해 정한 것이다. 이하 <표 2>와 <표 3>도 동일하다.

정도 접전할 것을 명시하였다. ‘용겹지세 2’는 양군이 합전하는 단계까지는 동일하게 시행한 후 미리 정해진 승패에 따라 한쪽은 퇴각하고, 다른 한쪽은 추격하였다. 이때 패배하기로 한부대가 퇴각을 시작하면, 뒤에서 대기하던 遊軍이 나와서 본대의 후방을 지원한다. 이에 대응해서 승리하는 부대의 유군도 나와 본대와 함께 전투하여 패군의 본진 앞까지 추격한다. 이처럼 유군은 부대의 후미에서 전체적인 전황을 살피다가, 유사시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주요한 변화는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이다. 세종대 대열의주에 서는 전군이 좌작진되 한 후 전투 훈련은 선발된 50명만 참여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양군은 300보 거리를 두고 걸진한 후에 양군의 前衛에 속한 騎·步戰統과 遊軍 3領의 군사들이 동원되었다. 統의 편제가 隊 혹은 旅임에 따라 합전에 참여하는 인원은 각각 약 380명, 1,895명 정도가 된다.<sup>77)</sup> 전투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이 군사 중 일부라는 점은 변화가 없지만 그 인원수가 상당히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정규군이 퇴각할 때에 遊軍은 정규군의 후위에서 움직이며,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용겹지세 2’에서 패배하는 군대가 퇴각할 때에 遊軍은 군의 후방으로 이동하여 捍後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용겹지세 1’과 ‘용겹지세 2’는 『주례』의 좌작진되 훈련과 唐代 皇帝講武 형식을 융합하였던, 조선의 大閱儀의 형식을 변형하고 응용한 것이다. 이어서 ‘용겹지세 3’과 ‘승패지형 1’을 함께 살펴보자.

77) 『진법』 「分數」에 의하면 統을 1隊로 편성할 경우 遊軍 1領은 약 42-3명이 되고, 1旅로 편성할 경우에는 214-5명 정도가 된다고 하였다.

<표 2> 『(오위)진법』 大關儀注 ‘용겹지세 3’·‘승패지형 1’의 절차

용겹지세 3	승패지형 1
<p>○ 客軍의 主軍 도발 客軍의 前·左·右 3衛의 戰統과 遊軍이 主軍의 진영 앞에서 합성을 지르며 도발 主軍은 동요하지 않고 진영을 수비</p>	<p>○ 합진 중 主軍의 거짓 패배 좌·우군의 前·좌·우 3衛의 戰統과 遊軍이 합진 主軍이 거짓으로 패배하여 본진으로 회군 客軍이 승세를 타고 主軍의 陣營 공격 主軍은 前·좌·우 3위 戰統과 駐統 동원하여 방어</p>
<p>○ 客軍 퇴각과 主軍 반격 客軍은 主軍의 반응이 없자 퇴각 客軍이 퇴각하면 主軍의 前·좌·우 3위 遊軍이 출진하여 客軍의 후미를 공격 客軍이 응하여 반격하며, 主軍의 遊軍은 다시 진영으로 회군 客軍이 다시 퇴각하면, 主軍 遊軍이 客軍 후미 공격하기를 3회 반복</p>	<p>○ 主軍 遊軍 출격, 客軍 공격부대 패산 客軍이 主軍의 진영을 함락을 위해 깊이 진입 主軍은 前·좌·우 遊軍을 출진하여 客軍을 가로질러 遊軍과 본군 사이를 차단 깊이 들어온 客軍 부대 사방으로 흩어짐</p>
<p>○ 主軍의 총공격(奇兵 운용) 客軍이 3회째 퇴각할 때, 주군은 奇兵을 출동 주군의 中衛와 後衛의 군사를 각각 左·右 翼으로 편성하여 客軍의 퇴로를 차단 奇兵인 좌·우익의 공격에 맞춰서 방어하던 前·좌·우위의 군도 출진하여 공격 客軍이 敗散하여 본진으로 회군하면, 主軍의 兩翼과 3衛 군사들은 客軍의 左右前面을 포위하고 賈勇한 후 회군</p>	<p>○ 主軍 총공격과 客軍의 敗散 主軍 5위 戰統 모두 출격 遊軍과 함께 客軍의 본진 공격 진형을 유지하던 5위 駐統도 모두 출격 客軍의 前·좌·우위가 무너지자 中·후위를 퇴각 主軍은 客軍을 추격하여 쫓아내고 행군하여 개선</p>

『(오위)진법』 「대열의주」의 ‘용겹지세 3’과 ‘승패지형 1’ 두 훈련 절차는 용겹과 승패로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만, 주로 훈련에 동원되는 군사가 前·左·右 3개 衛의 군사들이라는 점과 主軍이 客軍에 의해 본진을 공격을 받다가 遊軍을 출격하여 전황을 극복하는 동일한 양상의 훈련 절차로 구성되어 있어 함께 분



석하였다. 그리고 따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두 훈련 양식은 『계축진설』 단계에서 제시한 奇兵운용 원칙인 ‘傍出突擊’을 응용한 훈련으로 판단된다.

‘용겹지세 3’은 전·좌·우 3면이 공격을 받고 있을 때, 後衛와 中衛의 군사들이 각각 진영의 좌·우측으로 나아가 左翼과 右翼이 되어 적군을 공격하였다. ‘승패지형 1’의 경우 방어를 하고 있던 전·좌·우 3衛의 유군을 둘로 나누어 좌·우익을 형성하여 반격을 시도한다. 이때 두 훈련에서 奇兵으로 편성되는 군사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용겹지세 3’의 경우 후위의 遊軍과 기전통을 좌익으로 중위의 遊軍과 기전통을 우익으로 편성하였고, ‘승패지형 1’에서는 전·좌·우 3衛의 유군 중 좌위와 우위의 유군은 각각 좌익과 우익이 되고, 전위의 遊軍 중 前·右·中領은 우익, 左·後領은 좌익이 되었다. 즉, 奇兵으로 편제되는 부대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전황에 따라 적을 상대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군사들을 중 일부를 奇兵으로 운용하였던 것이다.

이는 정병과 기병의 운용을 미리 정하거나 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장수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오위)진법』의 기정 운용 원칙과도 합치한다. 때문에 『(오위)진법』에서는 이전 세종대 진법서와 같이 ‘正兵當敵’이나 ‘傍出突擊’ 등의 기정에 따른 교전 원칙을 설정하고 있진 않다. 대열의 훈련 절차는 기병 운용 방법 중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두 절차와 비교하여 前·左·右 3개 衛의 군사들이 훈련에 참여하여 훈련의 규모가 커졌다. 이는 문종 초 기존 진법 훈련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적을 상대하는 면의 군사들만 훈련에 참여하였던 점을 개선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승패지형 2’와 ‘승패지형 3’은 전군을 동원하여 적군을 포위 섬멸하는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훈련의 절차를 살펴보자.

<표 3> 『(오위)진법』 大關儀注 ‘승패지형 2’·‘승패지형 3’의 절차

승패지형 2	승패지형 3
○ 客軍이 主軍 포위 공격 客軍 中衛 제외한 4衛가 鳥雲陣으로 主軍 方陣의 4면을 포위 主軍은 遊軍까지 총 동원하여 방어	○ 양군 행군하여 접근 主軍은 길목마다 伏兵을 설치 客軍은 길목에서 점검만 하고 지나침
○ 客軍 본진 2표까지 전진 客軍 中衛는 신호에 따라 2표까지 전진 中衛의 군사는 疑兵이 되고, 遊軍을 몰래 伏兵으로 설치	○ 主軍 却月陣 vs 客軍 長蛇陣 主軍 客軍을 발견하고 却月陣 형성 客軍 長蛇陣 형성하여 主軍의 중앙을 공격
○ 主軍 長蛇陣 vs 客軍 鶴翼陣 客軍 거짓 퇴각, 疑兵도 퇴각 主軍은 이를 쫓지 않고, 진형을 지킴 主軍이 반응하지 않자, 客軍은 5衛를 횡으로 배치한 鶴翼陣 형성 主軍은 이에 대응하여 5衛를 종으로 배치한 도열한 長蛇陣 형성	○ 主軍 거짓패배 후 客軍 대장 포위 主軍은 부대를 일부러 양분하고 방어함 客軍이 主軍을 양분하여 통과할 때 主軍은 역공하여 客軍의 長蛇陣을 절단하고 長蛇陣의 앞부분을 포위 客軍 후미는 포위된 대장을 구하고자 力戰
○ 主軍이 客軍 포위, 客軍 패산 主軍이 客軍의 중앙으로 돌격하여 객군을 양분하고, 대장이 있는 쪽을 파악하여 포위 客軍 대장이 항복하면 외부의 客軍은 패산	○ 客軍의 패산 主軍은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며 내부를 압박 主軍 포위를 유지한 채 客軍을 伏兵 설치 지점까지 유인 伏兵과 함께 客軍을 공격하여 客軍 대장이 항복하면 客軍은 패산

<표 3>에 보이는 ‘승패지형 2’와 ‘승패지형 3’는 훈련은 대열에 참여한 양군이 전군을 기동하여 각각 長蛇陣과 鶴翼陣 등의 진형을 상대편을 포위하여 섬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사진과 학익진 혹은 却月陣<sup>78)</sup>의 운용 방식은 두 훈련 방식이 쌍을 이루는데, ‘승

78) 각월진은 ‘ㄷ’ 혹은 ‘ㄸ’ 형태로 부대를 배열한 진법이다. 조선 후기 병서인 『演機新篇』에 4統의 부대로 장사진, 학익진, 각월진, 언월진을 이루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연기신편』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는 柳在城, 『安命老의 생애와 演機

패지형 2'에서는 학익진을 이룬 상대방을 장사진으로 격파하는 상황을 설정하였고, '승패지형 3'는 반대로 상대방이 장사진으로 아군의 각월진을 돌파하고자 하였을 때 이를 역이용하여 적을 격파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학익진으로 橫으로 벌여선 적군을 상대할 때, '승패지형 2'는 縱으로 늘어선 장사진으로 학익진을 돌로 나눈다. 그 후 돌로 나누어진 학익진 중 적장이 있는 부분을 포위하여 섬멸하였다. '승패지형 3'의 경우는 '승패지형 2'와 반대로 적군이 아군의 진형을 장사진으로 돌파하고자 하면, 거짓으로 패배해 부대를 돌로 나누었다가 아군을 지나치는 적장을 포위하였다.

장사진, 학익진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부대를 포위하기 전에는 客軍의 4衛가 主軍의 진영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상황과 양군이 행군하다가 서로를 맞닥뜨리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훈련을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승패지형 2'와 '승패지형 3'에서는 戰統과 駐統의 구분 없이 전체 군사가 동원되어 대열의 훈련 형식 중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또 유군을 복병으로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는 등의 훈련도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오위)진법』 「대열의주」에 보이는 6가지 훈련절차를 살펴보면, 군대의 일부만 동원하여 전투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戰統과 駐統의 구분 없이 진영의 모든 군사들을 동원하여 공격하기도 한다. 이는 훈련시 일부 군사만을 동원하였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훈련의 형식도 다양해져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하여, 진법 이론을 실전 상황에 적용하는 방안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오위)진법』의 대열은 세종대 『주례』와 唐制의 제도에 따른 이상형(Ideal type)으로부터 벗

어나 실질적인(actual) 훈련 형식을 만들 수 있었다.

『(오위)진법』의 규정과 내용은 마치 전범과 같이 인식되기 보다는 다양한 훈련 방식과 진법 이론을 형상화한 하나의 사례로서 인식되었다. 『(오위)진법』 「대열의주」에서는 “전투[兵]에는 일정한 형상이 없으나, 한때의 의주로 이와 같이 훈련[敎閱]할 뿐이다.”고 하였다.<sup>79)</sup> 이러한 훈련 절차에 대한 유연한 인식인 『(오위)진법』의 병학에서 보이는 奇正을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경향과도 일치한다.

이는 1453년(단종 2) 지방에서는 군사수가 부족하므로 『(오위)진법』에 규정된 5위-5부-4통의 편제가 아닌, 2위-2부-2통으로 편제의 규모를 축소한 『略抄陣書』를 간행하여 지방에 보내도록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sup>80)</sup> 『(오위)진법』의 단계에서 4통 편제를 기본으로 하여, 통에 소속한 군사 수를 줄이더라도 4통 편제는 유지하여야 한다고 했던 것을 고려하면, 『약초진서』의 2통 편제는 상당히 급진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였던 것은 진법과 진법 이론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면서, 진법 운용의 핵심은 편제의 숫자 혹은 형식 등이 아니라 그 운용 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실제 진법 훈련의 사례를 검토하면, 『(오위)진법』의 편찬 직후에는 『(오위)진법』에서 규정한 6가지 형식에 따라 훈련을 하다가 점차 정해진 형식을 따르기 보다는 규모와 형식 등에 다양한 변용을 가하여 시행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문종 때에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대열은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위)진법』의 간행을 통해 정해진 새로운 형식의 군사훈련은 親閱, 閱武, 習陣 등을 통해서 시행되었다. 『(오위)

79) 『진법』 「大閱儀註」 ‘兵無常形 而一時儀註 則如此敎閱耳’.

80) 『단종실록』 권10, 단종 2년 3월 10일 신유.

진법』이 완성되고 2개월 후 『(오위)진법』 편찬에 참여한 金宗瑞를 비롯해 병조 관원들과 도진무 金孝誠 등에게 명하여 새로 정한 진법에 따라 2일간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sup>81)</sup> 며칠 후 친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위)진법』의 훈련을 시행하였다.<sup>82)</sup> 그 해 10월 친열 때 ‘6가지 형식’을 모두 거행하기 어려우니 그때마다 임의로 정하여 시행하겠다고 한 일과 11월에 당번 군사들을 동원하여 과록도에서 친열할 때 ‘6變의 법’을 연습하였다는 기록에서도 『(오위)진법』 대열의주에 따라 훈련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83)</sup>

『(오위)진법』의 편찬은 중국의 병학을 단순히 수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를 이해하고 응용하여 조선의 현실에 맞게 변용하였다는 병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문종대 『(오위)진법』으로 상징되는 병학의 발전은 當代에도 높이 평가되었다. 李承召는 ‘東郊習陣’를 통해 “八陣을 孔明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六花陣이 당나라에서 전해진 것도 아니구나. 이 진법은 문종조에 처음 만들었으니 신묘하고 밝은 계책이 깊고 또 장대하다.”라 하여 문종대에 정비한 진법체계를 새로 창제한 것과 같이 이해하였으며 諸葛亮의 八陣이나 李靖의 六花陣과 비교하여 못지않다는 자신감을 표출하였다.

#### 4. 맺음말

이상 조선 초기 진법훈련과 관련된 논의 그리고 군사훈련의레인

81) 『문종실록』 권9, 문종 1년 8월 20일 을유.

82) 『문종실록』 권9, 문종 1년 8월 28일 계사.

83) 『문종실록』 권10, 문종 1년 10월 16일 신사 ; 11월 8일 임인 ; 11월 10일 갑진.

大闕 절차 중 구체적인 훈련방식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주례』, 『개원례』의 훈련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로부터 두 가지를 융합하는 단계로, 최종적으로는 이를 응용하여 새로운 훈련방식을 창안하는 단계로 변화해나갔음을 확인하였다.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 대열은 군사훈련으로서의 기능 못지 않게 의례로서 완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동안 세종대 편찬되었던 『진도법』, 『계축진설』 등의 진법서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변화점이 갖는 군사적인 의미에만 집중해왔지만, 본 논문에서는 대열의 정립과정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두 병서는 『주례』와 『개원례』의 훈련 방식을 통합하여 진법훈련의 새로운 이상형을 정립하였다는 병학사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진법 운용의 원리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진행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종대에는 진법훈련의 내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오위)진법』 대열의주에 정리된 6가지 형식의 대열 훈련안은 조선 초기부터 지속된 군사훈련의례로서 대열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었다. 이는 세종대까지 『주례』 혹은 『개원례』의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고민을 넘어서 조선에서 수용하고 이해한 兵學 지식을 바탕으로 훈련방안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진법훈련 방식의 군사사적, 병학사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도법』, 『계축진설』, 『(오위)진법』 등의 병서에 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오위)진법』의 편찬 이후로도 『兵政』, 『國朝五禮儀』 등의 편찬과 관련하여 진법훈련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여야 본고에서 『(오위)진법』 단계까지의 진법훈련 변화가 갖는 역사적 의미도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세

조 재위기에는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이 행해졌다. 오위체제의 정립과 대열 편제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 세조대 이후의 대열 및 진법훈련의 변화가 갖는 군사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한다.

이처럼 군사훈련의례라는 관점에서 대열을 검토하는 일은 그동안 軍事 혹은 의례의 관점에서 대열을 바라보았을 때와 비교하여 조선 전기 군사훈련과 군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文治主義로 규정된 조선에서 軍事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조선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

『國朝五禮儀』, 『宋史』, 『陣法』, 『朝鮮王朝實錄』, 『通典』

### 2. 단행본 및 논문

곽성훈, “조선 초기 진법서의 편찬 배경과 활용”, 『역사와 현실』 97(2015):193-232,

<http://uci.or.kr/I804:11006-200000066917@N2M>

김동경, “조선 초기의 군사전통 변화와 진법훈련”, 『군사』 74(2010):105-138,

<http://doi.org/10.29212/mh.2010..74.105>

노영구, “조선후기 漢城에서의 闕武시행과 그 의미-大闕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2(2008);,

<http://uci.or.kr/G704-001254.2008..32.005@N2M>

박원호, 『明初期朝鮮關係史研究』, 일조각, 2002

백기인, “조선후기 국왕의 열무 시행과 그 성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2(2007):33-62,

<http://uci.or.kr/G704-001329.2006.27.2.015@N2M>

소순규, “조선초 대열의의 의례 구조와 정치적 의미”, 『사총』 75(2012):43-81,

<http://doi.org/10.16957/sa..75.201201.43>

오종록, 『여말선초 지방군제연구』, 국학자료원(2014),

<http://uci.or.kr/G701:C-00086379789@N2M>



- 柳在城, “安命老의 생애와 『演機新篇』에 대하여”, 『軍史』 75(2010): 257-293,  
<http://doi.org/10.29212/mh.2010..75.257>
- 윤훈표, “조선 세종대 진법서 편찬과 훈련체계의 개편”, 『군사』 81(2011):75-113,  
<http://doi.org/10.29212/mh.2011..81.75>
- \_\_\_\_\_, “조선전기 진법훈련 체계의 변화-이른바 오위진법과 진관체제의 성립을 중심으로”, 『역사와실학』 46(2011):5-40,  
<http://uci.or.kr/G704-002032.2011..46.002@N2M>
- 이왕무, 『조선왕실의 군사의례』, 세창출판사, 2019
- 임용한, “오이라트의 위협과 조선의 방어전략”, 『역사와실학』 46(2011):41-70,  
<http://uci.or.kr/G704-002032.2011..46.003@N2M>
- 정해은, 『한국 전통 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4),  
<http://uci.or.kr/G901:A-0006067456@N2M>
- 최상기, “新羅 將軍制 연구”(서울대학교 국사학과박사학위논문, 2020), <http://uci.or.kr/1804:11032-000000159606@N2M>
- 하차대, “조선초기 군사정책과 병학서의 발전”, 『군사』 제 19호(1989):100-155,  
<http://uci.or.kr/I410-ECN-0101-2016-390-001818144@N2M>
- 허대영, “정도전의 「陣法」에 보이는 병학사상에 대한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92(2020):7-39,  
<http://doi.org/10.21568/CDHA.2020.03.92.7>
- \_\_\_\_\_,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와 병학”(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http://uci.or.kr/1804:11032-000000167939>

(Abstract)

## The Changes in battle formation training and the establishment of 'Daeyeul' in early Chosŏn dynasty

Heo, Dae-yeong

During the period of the early Chosŏn Dynasty, the battle formation training was established as a military training ritual called 'Daeyeul', and had two characteristics: military training and military ritual. In previous studies, one only aspect of military training rituals has been focused on military training or military rituals. This thesis aims to reveal the military historical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changes of battle formation training of Daeyeul established as military training rituals in the early Chosŏn.

The Battle formation training in the early Chosŏn was organized as a military training ritual from the King Taejong's regime. At that time, the ritual process of Daeyeul followed *Kaiyuan Rites*, but training process was based on *Jindobeop*. The *Jindobeop* followed Jeong Do-jeon's military theory, which was succeeded *Rites of Zhou*. The task of establishing the Daeyeul as a military training ritual at the Sejong's regime was to unify the ritual process of *Kaiyuan Rites* with the *Rites of Zhou*. For the purpose, *Gyechukjinseol* was published and it was possible to establish Daeyeul as the ideal training ritual in Chosŏn.

After that, the training methods of the military training rituals of Chosŏn began to change. Ideological and the formal training methods were problems and tried to improve it. New training methods were attempted through *Yeulmu*, *Sŭbjin*. At first Military books of Chosŏn was just reorganizing the contents of Chinese military studies, but *OwiJinbeop*, an independent military training methods were created. The training types in *OwiJinbeop* was practical and concrete training that changed from

ideological and formal training.

Keywords : military trainig rituals, Daeyeul, battle formation training,  
Jindobeop, Gyechukjinseol, Jinbeop, Sübjin

